

# 전북 총선 사전투표율 17.32% 기록

### 152만32명 유권자 중 26만3,274명 참여 전국에서 두번째...접전지역 일수록 높아

제20대 총선 도내 사전투표율이 1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제가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횡수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높아지는 등 사전투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의 특징이 일깨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241개 사전투표소에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20대 총선 사전투표에 152만32명의 유권자 중 17.32%인 26만3,274명이 투표했다.

전국에서는 전남 18.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세종(16.85%), 광주(15.75%), 경북(14.0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지별 투표율을 보면 투표 첫날인 8일

은 8.31% 9일은 9.01%로 이튿날 짝 투표율이 좀 더 높았다.

주말인 토요일에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란 선관위 예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진안이 22.97%로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무주(22.07%)·순창(21.45%)·임실(20.64%)·남원(20.12%)·장수(20%)·부안(19.09%) 등의 순이었다.

군시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까지 전북에서 가장 낮은 14.4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횡수 거듭할수록 ↑

도내 사전투표율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전북 사전투표율은 16.07%를 보였다

역시 전남 18.09%에 이어 전국 2위(전국

평균 11.47%)를 차지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17.32%로 지난번보다 1.25%포인트를 경신한 것이다.

과거 사전투표율을 통해 총선 최종투표율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데에 비춰보면 이번 총선 결과 역시 지난 19대보다는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선풍위는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를 거듭할수록 사전투표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사전투표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접전지역일수록 ↑

이번 사전투표율을 보면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선거구일수록 투표율이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진안(22.97%)과 무주(22.07%), 장수(20.00%)은 모두 20%를 웃돌았다.

특히 진안은 도내 평균보다 무려 5.65%

포인트 높은 투표율로 도내 1위를 차지한 지역이다.

이들과 선거구로 묶인 완주군 역시 19.28%의 사전투표율을 보임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열기를 뜨겁게 반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영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전주병과 전주병과 함께 3곳은 양당 간 '전북 대결'의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더민주 박희순 후보와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임실순창남원지역 투표율도 눈에 띈다.

임실의 사전투표율은 20.64%, 순창은 21.45%, 남원은 20.12%로 도내 평균보다 3~4%포인트 높았다.

한편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 투표와 달리 거주지 인근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 '부탄문화회장'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10월 15일자 오피니언란에 2010년부터 부탄문화회를 운영하는 윌리엄 리 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외부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칼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공식적으로 부탄문화회는 '주한부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윌리엄 리 씨도 자신은 부탄의 외교관이 아니며, 부탄문화원은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탄문화원은 2010년부터 매년 연회회 참여 및 부탄 고위 공무원 한국 방문 시 의전 역할을 하는 등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칼럼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윌리엄 리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 4.13 선거 RUN·RUN·RUN

### 김광수 후보, 젊은층 투표 적극 참여 당부

국민의당 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의 후보는 최근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크게 아쉬워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김 후보는 정치 참여의 시작은 곧 투표라고 전제한 뒤 "정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규정하며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표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조직은 돈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고질적인 금권·조직선거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젊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통해 이런 그릇되고 왜곡된 정치 행태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취재반



### 유성엽 후보, "정권교체와 경제회생 최선 다할터"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정읍고창)가 지난 7일 정읍 상동농협 앞 8일 고창 시장 입구와 정읍 신대인시장 앞으로 이어지는 선거후반 대규모모임을 펼쳤다.

유성엽 후보는 그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부족했던 점을 보강하여 보다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연설을 시작하고 왜 3선에 도전하는가에 대해 전북중심의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후보는 "이명박정권 5년, 박근혜정권 3년, 8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여건이 어려워져서도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도 아니고 재벌대기업에 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교환정책, 일사적인 경기부양대책인 확대재정정책 등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차치하고라도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정이다. 새누리당에 국정 맡길 수 없다. 제대로 경제살릴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취재반



### 이석권 후보, "여론조사만 믿지 말고 올바른 선택 해야"

기호 6번 무소속 인산을 이석권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 후보)는 지난 8일 "여론조사만 믿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주어서 의신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표되는 각종 여론 조사 결과 중 상당수는 신뢰성 담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같은 지역 동일한 후보를 대상으로 불과 2-3일 내지는 3-4일 차이를 두고 여론 조사가 진행됐지만 조사 기관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 선거 중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의 경우 기호를 누르지 않거나 기타로 처리되는 등 여론조사가 정당후보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무소속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는 실제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지 않더라도 '될 사람은 될아지지!', 또는 '그 사람 찍어줘서 위해?' 이런 분위기로 인한 '사표(死票)'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추세가 집권화 보유율이 낮아지고 후대론 보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000세대와 같은 젊은층의 민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만으로는 실제 지지도나 지명도를 잘 밝힐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의신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4·13 선거에서 시민의 민심을 밝혀내는 일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가족들과 함께 투표해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송천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있다.

## 도내 사전투표율 순-역효과 공존

### 본투표 투표율 향상기대...선거운동 과열 조장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북지역 투표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선거율을 보이면서 오는 13일에 치뤄질 본 투표에서 도민들의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등의 사전투표 '순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사전 투표로 인한 선거과열 분위기 조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해 그에 따른 '역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엔 행해진 사전투표 방식에 몇몇 도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높은 투표율을 예상해오셨는지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선거운동 장면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선거법에 의하면 사전투표일 투표지에서 100m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몇몇 후보들은 사전투표지 길목마다 투표지와 100m 떨어진 곳에 팻말을 든 사람이 서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투표를 하기위해 들어가는 주민들이 선거운동을 볼 수 밖에없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실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에는 주민센터와 100m 떨어진 주민센터 들어가는 길목마다 총선 후보지를 홍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거운동인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전 투표 일정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도 발생했다.

사전 투표가 평일(8일 금요일)에 이뤄지는 관계로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해 사전

투표지가 주민센터의 2층에 설치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불편도 발생했다.

완산구 한 주민센터에 투표를 위해 방문한 김 모 씨(중노송동, 52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건물 구조인데 그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불편했다"면서 "비록 주위의 도움을 받아 투표는 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전 투표 시스템을 칭찬하는 투표인도 있었다.

투표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최 모씨(인후동, 52세)는 "신분증만 제시하니 투표용지가 바로 인쇄되는 시스템을 보고 놀랐"면서 "우리나라 행정이 이만큼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박근혜 대통령 전북방문 '선거개입' 비난 목소리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또다시 지방순회를 재개했다"며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순회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전북도당 역시 불만을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는 너무나 허술하고 잘못된 방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박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단체인 구성된 2016 전북지역 총선 공동투쟁본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전주 방문을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총선 공동투쟁본부는 "선거를 5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전주를 방문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개입이며 비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기간에는 장차관들도 활동에 신중해야 하는데 특별한 일정이 없는 데도 대통령이 전주를 방문한 것은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거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목주와 독선을 막아내지 못한 다면 민주주의는 풀이될 수 없이 후퇴하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박종길 후보,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함께 걷는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박종길 후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융합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 박종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후보(익산 을)는 지난 9일, 제13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에 함께 했다.

특히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과 함께한 박 후보는 "장애인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라톤을 위해 전국장애인 문화엑스포가 함께 개최 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비장애인과 문화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면서 스포츠 메카육성을 위한 사업을 확실히 해결해 나갈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며 강하게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 조배숙 후보, "익산의 가치를 두배로 키우겠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의 후보(익산 을)는 "익산의 가치를 두 배로 키우겠다"며 그 네 번째 공약으로 보석마을 조성 및 보석가공 연관 산업 유치로 보석 산업을 활성화 해 제의 전성기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조 후보는 "익산은 1970~80년대까지 국내 석재 생산의 70%를 차지하면서 수준 높은 보석 가공 시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 바 있다"며 "왕궁보석마을 관광단지 내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은 익산이 우리나라 보석 산업의 중심지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 때 사양 산업으로 취급받았던 보석 산업을 활성화 해 제2의 전성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후보는 "보석가공 관련 IT업의 유치, 지원 및 생산과 판매, 관광을 연계하는 보석가공 체험관광형 공장 등을 신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강동원 후보, "국내 최고 가족휴양관광지 만들겠다"

무소속 강동원 후보(남원임실순창)은 9일 주말을 맞아 남원시 공설시장과 터미널 등 시내 곳곳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를 호소했다. 강동원 후보는 "임실순창 3개 시군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지리산권역·섬진강권 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국내 최고수준의 가족휴양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의해 테마형, 체류형 가족휴양형 관광단지를 신규유치·조성해서 문화적 환경 조성 등 문화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신규 관광지 개발, 관광산업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동원 후보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등과 협의해 관광테마 열차운행 추진하고 KTX 열차운행 증편 및 수서발 KTX 전라선 연결하고, 전북 동부권 고속국도 조기추진, 지리산 고속도로 신규건설 등 3개 시·군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 제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